

# “학생부 불법유출엔 무관용의 원칙”

### 김승환 교육감 확대간부회의서 “심각한 범죄행위... 형사처벌해야” 밝혀

김승환 교육감은 학교생활기록부 불법유출, 불법사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서 “최근 학교생활기록부 불법유출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엄격하게 형사처벌로 가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1980년 OECD에서 발표한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정보

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지침’을 언급하면서 “OECD 지침에는 8개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수집제한의 원칙이다.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취득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정당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도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전북에서 (학생부 불법유출·불법사용)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고이나 과실이냐 묻지 않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다. 사립학교도 예외는 아니다”면서 “단위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줄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여론에 따른 대입제도 개선 논의에는 우려를 표명했다.

김 교육감은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을 보장하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에게 교육정책 결정을 맡기라는 취지인데 현재는 여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서 “지금 여론은 정시 확대를 가자하는데 그럴 경우 전북을 비롯한 충북, 강원도, 심지어 대구, 부산에 이르기까지 지역교육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이런 때일수록 현장 전문가인 일반계고 교사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필요가 있고,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적극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도민과 함께하는 인문학강좌 수강생 모집

### 지역주민 대상 무료 강좌 열려

전주대학교 인문학플러스(HK+)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이하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는 오는 18일부터 총 8주간 도민과 함께하는 인문학강좌인 ‘2019 온다라 인문 아카데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9 온다라 인문 아카데미’는 문학, 역사, 유교, 향교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 지식을 공유하고자 ‘공존의 인문학’이라는 주제에 맞춰 기획된 인문 학술 강좌다.

9월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전주대학교 진리관 109호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문화탐방도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수강생 모집 기간은 17일까지며,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수강료는 무료이다. 신청 및 문의는 전주대학교 HK+연구단 홈페이지(www.jiac.kr/hk) 혹은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063)220-3201~3203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수험생들이 전주비전대학교 상담부스에서 입시 상담을 받는 모습.

## 호남권 전문대학 수시 입학정보 박람회 ‘성황’

2020학년도 호남권 전문대학 수시 입학정보 박람회가 지난 7일 전주비전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성황리 진행됐다고 밝혔다.

대중 링링의 영향에도 수험생과 학부모 1,500여 명이 참여해 입시에 대한 높은 열의와 관심을 보였다. 이번 박람회는 호남권(제주포함) 총 18개 전문대학이 참여했다.

이날 입학정보 박람회에서는 수시비중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변화하는 수시전형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특히, 호남권 전문대학 수시 입학정보 박람회는 지난해부터 전주와 광주에서 각각 개최해 지역 수험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대학별 부스가 마련돼 학과설명과 함께 입학 담당관 및 진로진학전문가와 1:1 상담 코너를 운영해 전문적인 진학상담이 제공됐다.

전주비전대학교 미용건강과에 지원한 진소연 학생은 “평소 관심이 있었

던 전공 관련 교수님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학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람회를 주최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수험생과 학부모, 진학지도 교사가 전문대학 입학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수시모집에서 지역 대학을 많이 지원함에 따라 지역별로 수시 입학정보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교육지원청, 교육발전 민관협력위 정기회의 개최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근)은 지난 6일 본청 3층 회의실에서 2019 전주교육 하반기 교육정책 및 각종 현안에 대한 상호 소통과 협력을 위해 ‘전주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를 개

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2019 하반기 전주교육 정책의 주요 방향 이해 및 2020년 본예산 편성 등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

비한 지역 인사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전주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참석 위원들은 학교폭력 증가와 이에 따른 학교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징벌적 처벌 보다 자존감 향상을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 지역 산업의 저변 확대 ‘앞장’

### 전주대, 지역특화 산업 아이디어 발굴 캠프 성료

전주대학교는 지난 6일부터 8일 까지 3일 동안 부안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에서 열린 ‘J-cube 오픈형 창업교육 지역특화산업 아이디어 발굴 캠프’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전주대와 인제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영호남 지역의 특화된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을 위해 진행됐으며, 도내 대학생 및 인제대 학생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학생들은 먼저 지역별 특화 산업 성공사례를 교육받고 지역특화산업과 농식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멘토링을 통해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총 9팀의 창업 아이디어 도출됐다. 도출된 9팀의 아이디어는 10명의 전문 멘토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

화되었으며 아이디어의 우수성과 사업 가능성 등을 평가해 차등 시상됐다. 우수 아이디어는 이후 창업동아리 연계 등 후속 지원도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대 창업지원단 단장은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적용 능력을 갖춘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하고, 지역 간 창업 교류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대 창업지원단은 경진대회 뿐만 아니라 중·고교 창업교육, 창업 인제 전형 선발, 대학생 창업 강좌, 일반인 창업 강좌, 창업캠프 등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창업자별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창업 중점 교수, 창업전문 매니저들이 예비 창업자를 밀착 지원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 도교육청,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9일 본청 2층 강당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올바른 인식 개선을 통해 사회적 차별이 없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지적장애 3급을 극복한 소리꾼 장성빈과 고수 차영석의 판소리 한마당 공연으로 장애인권감수성을 키우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조현희 과장이 강사로 나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장은성 기자

이 날 본인 이름과 소속 부서, 추석, 가을, 한가위 등 제시어 중 택1하여 장애인식개선과 장애인해, 장애인권이 잘 드러나도록 하는 N행시 짓기 행사가 진행됐다.

도교육청 담당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존중받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전북교육청 직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인권을 보호해 차별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추석 맞아 사회복지시설 방문

전북교육연구정보원(원장 김갑식)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서로 돕고 더불어 사는 나눔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5일에는 노인복지시설 은혜요양원을, 6일에는 아동복지시설 호성보육원을 방문해 화정지, 수건 등 생활용품품을 전달하고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연구정보원 관계자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더불어 사는 나눔의 정성을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과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온다라 인문 아카데미

2019. 9. 18. - 11. 13. 매주 수요일 16:00 ~ 18:00

차수	일시	강사(강사명)	장소
1회	09. 18	필요 사항의 불명확 방문	진리관 109호(전주대학교)
2회	09. 25	남이없는 호수문화의 공간, 향교	진리관 109호(전주대학교)
3회	10. 02	책(책)을 읽는 방법(책)을 읽는 방법(책)을 읽는 방법	진리관 109호(전주대학교)
4회	10. 09	다들 뭐 하냐	진리관 109호(전주대학교)
5회	10. 26	인간의 욕망, 문화의 소용돌이	진리관 109호(전주대학교)
6회	11. 02	시대의 변화는 문화의 변화	진리관 109호(전주대학교)
7회	11. 09	공공을 위한 문화의 역할	진리관 109호(전주대학교)
8회	11. 16	문화의 힘과 사회적 책임	진리관 109호(전주대학교)

문의처: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063)220-3201~3203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